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10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도쿄 Belle Salle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에서 총 22명의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오나가와 원전을 방문하는 산업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한 한국 측 대표단장(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게재한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

개회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지속적 협력 채널 마련해 나가길”**

존경하는 아키오 타카하시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님, 카츠야 사토 상무이사님, 타쿠야 핫토리 수

석고문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본측 발표자 및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저는 1980년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고 1990년 처음 일본 관서전력 연수원을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가시와자키 가리와 겐빠츠, 미하마 겐빠츠와 WANO Plant Manager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가, 도쿄

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일본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를 맞이하여 한국 측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 정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일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일 세미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일 양국 산업계 간 현안사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원자력 관계자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7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금년 들어 3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일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면서 많은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국 내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공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강진 여파로 원전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정부의 탈원전 공약으로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안전이 강화된 규제 요건에 따라 센다이 1·2호기, 다카하마 3·4호기, 이카타 3호기 등 5기의 원전의 재가동과 함께 최근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가동을 다시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뉴스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 내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원전 재가동 등의 추진 계획은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금년 한일 세미나 구성을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 현황,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과 관련 기술 현황, 그리고 지진 대책 방안 등 양국 간 현안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에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라는 공통의 목표에 관심과 상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원산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제염해체기술 전문교육 현장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측 참가자로 중견기업 관계자들께서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현안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한일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채널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측 대표단이 방문하게 될 후쿠시마 다이이치 겐빠츠와 오나가와 겐빠츠의 시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간 상호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일본 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폐회사

“원전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제안”

존경하는 아키오 타카하시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님, 카츠야 사토 상무이사님, 타쿠야 핫토리 수석 고문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일 양국 발표자 및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일본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원자력산업회와의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국 측을 대표하여 마무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해 주신 한일 양국의 참석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후쿠시마 재건과 후쿠시마 다이이치 겐빠츠 제염해체’, ‘원자력시설 해체’, ‘원전의 지진대책 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큰 사고를 겪었지만, 이후 철저한 제염과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본 정부 및 지자체와 도쿄전력 및 지역주민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도쿄전력 직원들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저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오늘 공유해 주신 발표자와 발표기관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원자력시설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일 양국은 원전을 도입한 지 약 반세기에 가까운 선도국으로서 앞으로 노후화

로 인해 영구 정지하여 해체되는 원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완벽한 원전의 제염,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한일 양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로 그간 연구개발해 오던 원전 해체 관련 기술을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전 제염, 해체에 착수한 일본 역시 다양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실제 사례들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또한 한일 양국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완공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지만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또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재처리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특별 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의 원전 지진 대책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원전 운영국보다도 지진 안전성에 대한 노후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들은 지진 자체로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한일 양국의 원자력산업계는 지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원전의 내진 보강에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의 확립 또한 중요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원전 사고에 있어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미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또한 2015년 7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간하며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않게 하려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가능한 모든 기술적, 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지난 3월의 IAEA 이사회에서 원자력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접한 우리 한일 양국이 개별적인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당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원자력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를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면 한국, 중국, 대만 등 주변국 및 IAEA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3년에 첫 협력 관계를 맺고, 1979년에 처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를 개최한 이

래 이번으로 34회 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발표를 통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양국 참석자 여러분!

금년 한일 세미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복구 현황,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과 관련 기술 현황, 그리고 지진 대책방안 등 양국 간 현안 과제에 대해 서로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그리고 양국의 원자력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상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한국 대표단의 산업시찰 일정이 시작됩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겐빠츠와 오나가와 겐빠츠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특히 이번 산업시찰에는 한국에서 실제로 원전 운영에 종사하고 계신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해 주었습니다. 뜻깊은 교훈의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구와 재건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찰 기회를 제공해 주신 후쿠시마 다이이치 겐빠츠의 관계자 분들과 오나가와 겐빠츠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일본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한 모든 일본측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